

GABON

IN

AFRICA



# 아프리카의 세 가지 흔적 가봉 에코 투어

원시 자연의 언어가 귀에 들릴 즈음 아프리카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몸은 금세 문명에 적응했으나 영혼만은 발끝에 달았던 사바나 초원의 감촉을 한동안 놓치지 못했다.

글 | 이영란 사진 | 오세영 취재 협조 | 가봉 정부(Amazing GABON), 트래블디스이즈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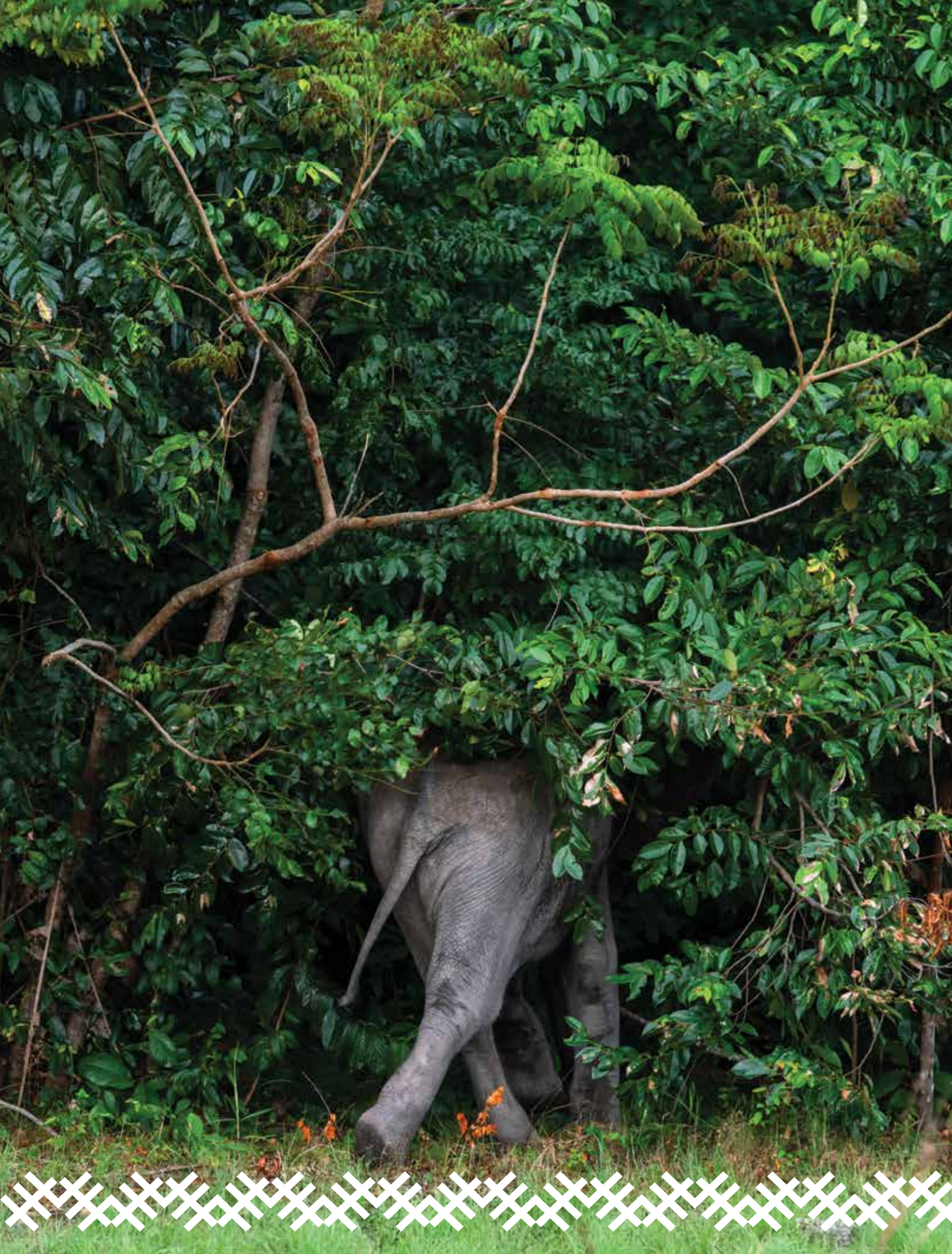


풍가라 국립공원의  
노을은  
눈이 시리도록  
장엄하다.





가봉에서는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아프리카의 꾸밈없는  
야생을 만날 수 있다.







흔적을 찾아보곤 한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봉은 우리는 물론 지구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다.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52개 명소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받았으나 아직 관광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외국 관광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가봉 정부의 노력으로 5년 전부터 열대 생태계 보호와 에코 투어가 본격화되면서 모험심과 도전 의식이 충만한 세계 여행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

현대 문명이 비껴간 야생동물의 낙원에서 파도를 서핑하는 말, 모래 해변을 산책하는 코끼리, 매년 알을 낳기 위해 해변을 찾는 장수 거북, 대서양을 오가는 혹등고래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원시 아프리카의 땅으로 차츰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 랑바레네, 슈바이처 생애의 흔적

본격적인 에코 투어를 떠나기 전 가봉에서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었던 곳을 찾았다. 195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슈바이처 박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랑바레네였다. 수도 리브르빌에서 자동차로 약 네 시간 거리에 있는 랑바레네에는 박사가 1913년 설립한 병원 세 곳과 현재 운영 중인 병원, 그리고 생을 마칠 때까지 머물렀던 주거 공간이 그대로 남아 전 세계 방문객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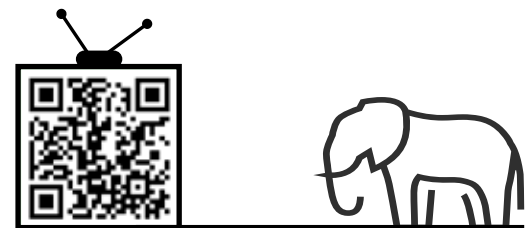
가봉에서 가장 큰 오고우에 강가에 위치한 오고우에 팔라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예상했던 대로 다리 굽은 안경, 나무 피아노, 손때 묻은 의료 기기, 낡은 가죽 구두 등 마치 지금이라도 슈바이처 박사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만질 듯한 물건들이 그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대부분 먼저



랑바레네에서는 오고우에강을 모터보트로 유람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는 강과 호수를 찾는 하마와 펠리컨, 백로, 가마우지 등이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LAMBARÉNE



### 가봉의 자연과 문화가 담긴 동영상

QR코드를 스캔하면 하늘과 지상에서 촬영한 가봉의 자연 풍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모습을 생생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때로 잔인하도록 무섭게, 혹은 한없이 온화한 얼굴로 인간을 매료시킨다. 하얀 나비가 바람에 꽃잎처럼 흩어지던 풍가라 로지에서의 아침 식사는 환상적이었지만, 로앙고 국립공원의 검붉은 강을 가로지르는 모터보트에서 마주한 뾰뾰한 열대우림의 적막함은 두려운 기억으로 남았다. 타인의 시선으로 전해진 이야기나 풍경이 아니라 나의 두 눈과 두 볼, 두 발에 닿은 대지의 감촉으로 야생을 경험하는 동안 감정 또한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달빛에 고이 잠든 바다 곁 숙소에서 고요한 평화를 경험했으나 도시 불빛이 멀어질수록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야생과 문명 사이를 서성이는 아프리카 여행자가 잠시 되었을 뿐 변함없는 일상의 도시인으로 복귀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인간이 선택한 현재의 삶이 과연 신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내가 만난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을 찾아왔던 우리 일행을 어떻게 기억할지 시간을 자꾸 되돌려 보며 아프리카 여행의





가 쌓이고 변색되었지만 그의 검소한 삶과 인류에 남긴 숭고한 메시지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박물관 안내원의 말에 따르면 슈바이처 박사는 프랑스에서 랑바레네가 위치한 오고우에강까지 무려 3개월간 배로 대서양을 오가며 주민을 진료하고 열대 풍토병 치료와 연구에 앞장섰다고 한다. 반세기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 이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펼친 슈바이처 박사는 1965년 자신이 설립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박물관 뒤편에는 박사와 그의 뜻을 이어 병원을 운영한 외동딸 레나 슈바이처 밀러, 그리고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의 소박한 무덤이 자리한다. 일행이 슈바이처 박사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방문한 시각은 오후 3시경. 때마침 햇살이 찾아와 돌로 만든 십자가와 소박한 묘비에 영롱한 빛을 비추었다. 후대 사람들이 그의 박애 정신을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나 아프리카의 자연만은 그 아름다운 생애의 흔적을 잊지 않고 있었다.



## PONGARA NATIONAL PARK

풍가라 해변은 야생동물 서식지로 유명하다. 때때로 하마와 악어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수백 마리 장수 거북은 이곳에서 매년 알을 낳는다. 이 때문에 지구에서 오염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에코 여행자들의 발길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

### 야생동물의 발자국, 풍가라 국립공원

슈바이처 박사를 가슴에 담고 찾은 다음 여행지는 리브르빌에서 멀지 않은 휴양지 풍가라 국립공원. 가봉의 총 13개 국립공원 가운데 수도 리브르빌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는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따라 숲과 해변을 걷고 사바나 평원 너머 대서양의 일몰을 감상하는 사파리 투어로 이름난 니오니에와 마치 정지된 듯 평화로운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 숙소 풍가라 로지가 위치한다. 니오니에에서는 야생 코끼리와 동물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안내와 달리 오후 4시에 시작된 사파리에서 조차 동물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개조한 픽업트럭만 보면 바로 숲속으로 숨는 코끼리와 인간의 출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버펄로 몇 마리를 먼 거리에서 발견했을 뿐이다. 일행 모두 조바심이 날 무렵 굵은 비까지 쏟아졌다. 차 안에는 우비와 우산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웬일인지 그 누구도 비를 피하지 않았다. 초원 위 야생동물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온몸





풍가라 로지는 나무와 야생화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에코풍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으로 맞는 자유로움. 모두 맡은 하지 않았지만 촉촉하게 젖어드는 사바나에서 야생동물과 동화되는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어떠한 문명의 도구로도 방해받기 싫은 심정이었던 것 같다.

이날 니오니에에서 선택한 숙소는 침대와 나무 책상만 단출하게 놓인 오두막 같은 해변 방갈로 '베티의 집'.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었으나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는 고사하고 야생 코끼리도 못 본 사실이 안타까워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누운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들도 잠을 청할 거라 생각하니 마치 울타리 없는 동물원에 숙박하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행히 다음 날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큰 어미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했다. 당일 새벽 마을 인근 숲에 다녀가면서 남긴 것이라는데, 처음 만난 반가움 때문인지 내 신발 아래 코끼리 발자국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풍가라 로지는 꼭 한 번 더 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숙소였다. 계살과 감자, 치킨, 양배추, 애플파이 등 미식가들도 감탄할 맛깔스러운 식사와 노을빛이 감도는 로지는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지로도 손색없었다. 나무와 다양한 풀, 해조류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한 에코풍 인테리어가 단연코 돋보였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저녁, 붉게 물드는 해변에 놓인 선베드에 누우니 파도가 가슴 안으로 밀려들었다.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그곳에서 도시의 감각을 놓아 버린 채 짙은 어둠이 방해할 때까지 정물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풍가라 국립공원의 백미는 아침 풍경이다. 쉽 없이 주변을 오가며 지저귀는 새와 로비 주변을 날아다

니오니에에서는 코끼리, 버펄로, 사슴 등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따라 사파리 투어를 한다. 사바나 평원에는 개미집이 줄지어 장관을 연출하고, 동물들과 함께 이용하는 숲길을 따라 얇은 언덕에 오르면 열대우림 너머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 이영란





나는 하얀 나비들이 조연으로 출연한 덕분에 나는 영화 <타잔>의 제인이 되어 정글의 만찬을 즐겼다. 야생에서 동식물과 함께 먹는 듯한 자연의 식탁에서 음식의 영양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심신에 공급받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해변 사파리 투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험이다. 총길이 26킬로미터나 되는 풍가라 국립공원의 해변 일부와 로지 인근 등대에 올라 대서양을 바라볼 기회가 주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낯설고도 신비로운 광경에 흠뻑 빠져 휴대전화와 고프로 히어로 블랙7, 태블릿 PC, 카메라 등 각자 준비한 기기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 다만 그 덕분에 해변에 누워 잠자다 놀라 도망치는 버펄로와 형형색색 계들의 분주한 움직임, 멋진 개 두 마리와 함께 해변에서 조깅을 즐기는 관광객(개 발자국을 보고 표범 발자국으로 착각해 한동안 일행은 흥분에 들떴다)의 모습을 평생 영상과 사진으로 간직하며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시 지구의 잔흔, 로앙고 국립공원**

가봉의 생태계는 아프리카에서도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오랜 내전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야생동물마저 떠나 버린 주변국이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부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와 달리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대우림은 도시 개발과 관광산업을 피해 오랫동안 '지구의 마지막 에덴'이란 명예로운 이름도 얻었다.

그러나 앞서 방문한 풍가라 국립공원만으로는 그 명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2박 3일간 가봉에



서 가장 유명한 생태 관광지이자 에코 투어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로앙고 국립공원 북쪽 투어를 경험해 보기로 했다.

현재 중국 자본으로 로앙고 국립공원 인근까지 도로를 건설 중인 하지만 도시와 한참 떨어진 그곳으로 가는 길은 다소 험난했다. 리브르빌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의 포르장티로 이동한 후 자동차로 비포장도로를 네 시간여 달리자 비로스 여행안내소인 로앙고 로지가 나타났다. 숙소인 리브르빌 메리어트 호텔을 나선 지 무려 아홉 시간이 지난 시각이었다. 다행히 오랜 이동 시간에 지친 여행자를 위로하기 위해 준비된 모든 시설은 안락하고 경이로웠다. 싱싱한 야생화로 장식한 푸근한 침대와 통나무로 지은 숙소는 세계적인 휴양지에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해 질 무렵 산책길에 만난 로지 주변 풍경은 온통 난생처음 보는 수려한 자연의 작품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방갈로 주변 고운 모래에 새겨진 새들의 발자국, 바람이 조각한 나



**LOANGO NATIONAL PARK**

가봉에서 만나는 코끼리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코끼리와 몸집도 종류도 다르다. 신이 맨 처음 내어 준 태고의 자연환경에서 마음껏 이동하며 살아가는 열대우림 코끼리로, 몸집은 작지만 힘이 세다. 관광객에게 익숙해진 사바나 코끼리와 달리 사람을 보면 몸을 숨기거나 경계한다.





무의 결,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강물은 내가 아는 감탄사로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로양고 로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 감각을 잃고 자연의 품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원시 아프리카를 직접 경험하는 기쁨과 감탄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보트 바로 앞에서 강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코끼리와 솟대처럼 높이 솟은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새들을 목격했다. 숲에서 나와 초원을 무리 지어 이동하는 레드리버호그(덤불 멧돼지)와 20여 마리의 코끼리가 새끼와 함께 사바나를 이동하는 모습을 도보 사파리, 자동차 사파리, 보트 여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끽했다. 밤에는 악어를 관찰하는 나이트 사파리에 참가해 보트에서 달빛 아래 유유히 맹그로브 숲을 유영하는 악어를 지켜보았다. 고릴라 요양원이 있는 밀림 지역을 다녀오는 고릴라 트레킹 프로그램도 있었으나 하루 탐방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목격하기도 쉽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 아카카 상류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난생처음 보는 늪지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로양고 국립공원은 원시 자연의 생태계를 제대로 경험하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래를 허공에 날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살피고, 코끼리가 좋아하는 열매를 직접 따서 먹어 보기도 한다. 다양한 야생을 체험하는 동안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 일행을 안내한 로양고 국립공원 가이드 피에르는 전체 길이가 무려 175킬로미터에 달하는 공원 남쪽 해변 일부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탄생한 후 350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모래사장이 있다며 자랑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행과 나는 이미 이곳이 원시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여행가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모르는 더 큰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정글보다 가혹한 도시 생태계에서 열대우림보다 높은 집을 짓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삶은 순수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 자유와 희망의 증거, 리브르빌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리브르빌로 돌아왔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서아프리카의 바닷가 도시 중 한 곳인 리브르빌은 '자유의 도시'답게 해안을 따라 주도로가 열려 있어 어





는 곳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여행자들을 환영하는 꽃다발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파도를 보내 준다.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부드러운 해변을 걸으면서 이번 여행을 정리했다. 보라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대서양의 노을은 보면 볼수록 화려하고 신비롭다. 불과 몇 세기 전 서아프리카의 검은 눈물, 붉은 역사의 현장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거친 사막의 모래 폭풍도,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고통과 빈곤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자연도 인간도 저 바다가 15세기 유럽인들의 황금과 상아 약탈, 흑인 노예 매매의 장소였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가봉인들은 파도가 부서지는 '노예의 다리'에서 셀카를 찍고, 연인들은 '자유의 석상' 곁에서 사랑을 속삭인다. 가족들은 해변에서 수영과 피크닉을 즐기며 자녀들이 재잘대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한가로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다 문득 지난 13일간 이곳에서 내가 경험한 가봉의 모든 풍경이 현실이었는지 마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밤사이 코끼리가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마을에서 잠을 청하고,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뿐인 듯한 섬의 끝없는 해변을 달렸으며, 정글 트레킹 중 새끼와 함께 파피루스를 먹던 코끼리의 노여움을 샀던가. 노을보다 화려한 네온사인에 물들기 시작한 도시의 그림자를 보니 여행에서 마주했던 원시 자연의 빛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리브르빌을 떠나며 이제 막 기지개를 켜 원시 아프리카의 땅, 가봉의 관광산업이 아름답거나 혹은 두려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



## LIBREVILLE

### INTERVIEW

#### 가봉의 현인, 박상철 한인회장

지난 2015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배달의 무도팀 정준하가 멀리 가봉으로 찾아가 만난 사람은 박상철 가봉 한인회장이었다. 당시 가봉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깜짝 배달된 어머니의 음식에 감격했고,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그때 가봉이란 나라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박상철 회장은 어떻게 지냈는지 직접 방문해 근황을 들어보았다. "가봉과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35년입니다. 그간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해야 할 일이 생기네요."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경호실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고 근면한 한국인의 저력을 가봉에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작은 교민 사회인 가봉한인회를 이끌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중이다. 문득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건강이 궁금했다. "올해로 연세가 92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한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지난 가을에도 한국을 방문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가봉인을 위한 태권도 보급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는 그의 '가봉 사랑'과 열정은 변함없이 현재진행형이었다.



**가봉 여행 1번지, 트래블디스이즈아프리카**  
개인 여행이 쉽지 않은 가봉. 아프리카 야생을 그리워할 여행자를 위해 9박 11일 패키지를 선보인다. 일정에는 슈바이처 박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람바레네와 풍가라 국립공원, 로앙고 국립공원 탐방이 포함되며 가격은 항공료와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1인 270만 원 선이다. 문의 02-6205-1260 [www.thisisafrica.co.kr](http://www.thisisafrica.co.kr)







# 가봉에서 인상 깊었던 추억



## INFORMATION



### 가봉 기차 여행의 시작, 오웬도역

가봉의 중앙역으로 현대식 설비를 갖추었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두 종류로, 에어컨을 장착한 독일식 차량 '익스프레스 트랜스 오고우에'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 '유니버스 에쿠아퇴르'로 나뉜다. 두 기차 모두 수도 리브르빌에서 오후 6시 50분에 출발해 남쪽 도시 프랑스빌까지 야간 운행한다. 수하물, 지역 간 식재료를 운반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



### 가봉 국립박물관의 신비한 가면

가봉의 대표 기념품인 전통 가면과 고대 부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통 악기, 주술 도구, 장신구 등을 만나는 전시 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부족장들의 권위와 힘의 상징이던 가면과 민속품이 이채롭다. 아프리카 부족 중 유일하게 의식 때 사용하던 라피아 아자수 의상과 고릴라 머리로 만든 가면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1번 국도 변에 설치된 적도 표지판

리브르빌 동남쪽 슈바이처 병원 마을이 있는 도시 랭베레네로 가는 1번 국도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번갈아 나타나고 목재 운반 트럭이 빈번히 오가므로 이동하기 다소 불편하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가봉인의 삶을 목격하고 지구의 중앙, 적도가 지나가는 아프리카에 와 있음을 실감하는 적도 표지판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 니오니에 열대 평원과 정글 사파리

리브르빌 미셸마린 항구에서 모터보트로 한 시간, 공구에강 상류 선착장에서 사륜구동 차량으로 다시 한 시간 달려 도착하는 1박 2일 여행지. 음료와 주류가 무료인 숙박 시설 '베티의 집'은 해변을 따라 소박한 방갈로를 25채를 갖추고 맛깔스러운 요리를 제공한다. 정글을 세 시간여 달리는 이곳 사파리의 백미는 열대 평원 언덕 너머로 마주하는 대서양의 풍광이다.





## 가봉의 진귀한 체험 명소

### INFORMATION



#### ‘다방’에서 맛보는 가봉 커피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상호도 ‘다방(Dabang)’이다. 리브르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고급 살롱 문화와 한국 음식을 즐기려는 가봉인과 현지 교민이 즐겨 찾는다. 가봉 커피 농장에서 재배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케이크, 샌드위치, 오믈렛 같은 브런치와 불고기백반, 팔방수, 인삼차 같은 한국 음식도 인기 있다.



#### 가봉 시장 상점에서 의류 맞춤 ‘가봉’

패션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가봉에서는 재봉사가 직접 재단하고 만든 맞춤 의류 상점이 성업 중이다. 리브르빌 시내의 원단 판매점 혹은 의상실에서 원단을 직접 고르고 다양한 샘플이 인쇄된 책자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치수를 재면 주문 완료. 비용은 대략 5만 원 내외로 의상 한 벌을 완성하기 까지 3일 정도 소요된다.



#### 론다 워커 수목원의 정글 트레킹

리브르빌 인근에 위치한 원시림으로 9개의 정글 트레킹 코스가 탐방객을 맞는다. 10.8킬로미터를 걷는 코스는 목격지 해변에서의 피크닉을 포함해 네 시간여 동안 에코 투어 가이드가 동행해 숲의 생태계를 생동감 있게 설명해 준다. 연료와 수분 공급을 해 주고, 건축 도구와 약재로 쓰였던 다양한 나무와 야생식물, 60미터 높이의 거목이 모험심을 충족시킨다.



#### 요카 스포츠 바에서 축구 관람

가봉인들의 나이트 라이프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인 가운데 축구나 농구 팬은 퇴근 후 스포츠 바에 모여 경기를 관람하며 술과 음식을 즐긴다. 요카는 마라도나,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사인이 새겨진 유니폼과 스포츠 기념품을 전시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노래방과 칵테일 바도 겸한다. 문의 [www.yokagroup.ga](http://www.yokagroup.ga)